

[22] 의료용 방사선의 피해와 방에 대한 환자·보호자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

전주예수병원 진단방사선과
정 기 랑

목 적 :

최근 각종 방사선 피폭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해 및 방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방사선의 이용 증가로 인한 국민피폭선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. 더욱이 의료정보의 대중화 등 의료환경변화는 모든 의료분야에서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고,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에 대한 피폭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방사선 수혜자 측면에서의 피폭관리는 전무한 상태이어서 방사선 피해와 방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, 인식도, 태도 및 방행위를 분석하여 국민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

전라북도내 3개 종합병원의 입원실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 총 617명의 자료를 SPSS 7.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결 과 :

- 1) 피해에 대한 지식정도는 전체 응답자중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이 26.4%, 조금 아는 사람이 73.6%로 조사되었다.

- 2) 촬영관계로 어쩔 수 없이 방사선 피폭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촬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가 환자는 59.6% 보호자가 64.0% 방사선 피폭을 그냥 감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전체 응답자 중 13.8%는 질문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.
- 3) 방사선 방에 대한 지식은 환자보다 보호자에서 높게 나타났다($p<0.05$), 응답자 중 65.3%가 “방사선 구역” 표시를 식별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4) 방사선 피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61.9%로 촬영장소를 피하거나 방호복을 착용해 적극적인 방에 형태를 취한 반면 피해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 61.2%나 그냥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($p<0.01$).
- 5) 방사선 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71.4%가 촬영장소를 피하거나 방호복을 착용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방사선 방에 대하여 조금 아는 사람은 60.1%로 그냥 무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($p<0.01$).
- 6) 교육이 높을수록, 여자보다 남자에서 피해와 방에 대한 지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($p<0.05$), 환자보다는 보호자가 방에 대한 인식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($p<0.01$).
- 7) 교육전 방사선 방에 대해 낮은 방행위를 보였던 환자, 보호자 대부분이 간단한 교육 후 촬영장소를 피하거나 방호복을 착용하겠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행동변화를 보였고, 특히 교육 전 촬영장소에서 그냥 무시한다고 응답했던 환자 63.1%가 교육 후에는 10.8%로 떨어져 높은 행동의 변화를 갖겠다는 의견을 보였다($p<0.01$).